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 중 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시편강해

## 연합과 공동체

### (시편 133:1-3)

## Unity and community

### (Psalm 133:1-3)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1절), 다윗은 자기 왕국을 위하여 이 같은 복을 열망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다윗 왕도 이 같은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순수한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132편의 메시아의 통치를 통해 주어진 복의 약속이 본 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Jong-yun Lee (Senior Pastor)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live together in unity!" (v. 1). David longed for a kingdom that was blessed like this, but the great king never realized this ideal. A pure community can only be built by Jesus Christ. The promise of the blessings under the Messiah's reign in Psalm 132 are expressed well here.

### 1. 연합의 복

연합과 화합은 강자에게 굴종하거나 약자를 정복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정점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아름다움의 극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죄의 비참한 모습 가운데는 분열, 부조화, 적개심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신 하나님은 다시금 조화를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연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 1. The blessing of unity

Unity and hamony do not mean that people need to succumb to the strong or subdue the weak. However, we can say that unity and harmony are the ideals of beauty, because they reach their peak in the Lord. Unity is a gift that comes from God. Because of our miserable sins, there is disunity, disharmony, and hostility, but God, who has won over our sin, will once again bring harmony.

국가나 교회, 그리고 가정의 평화는 중요한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화평과 연합은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의 축복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흐릅니다. 또한 연합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은 우리에게 좋으나 유쾌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연합은 선하고 유쾌한 것입니다.

All unity comes from God. The peace of a country, church, and family is beneficial not only to important persons but to all. Harmony and unity become blessings upon all people; the blessing of unity flows from one person to another. And this unity allows us to taste heaven in advance. Certain things in this world seem to be ok, but they don't really give us happiness. Therefore, the unity that God's people enjoy is good and pleasant.

### 2. 연합의 실종

오늘날 우리 사회는 연합보다는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가 숭상되고, 경쟁사회가 되면서 연합과 조화는 개인권리와 집단 이기주의에 밀려 더 이상 고급가치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원주의는 개인주의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 2. The disappearance of unity

Today our society is deepening into disunity and conflict rather than unity. While pluralism is being pursued and society is becoming competitive, unity and hamony are pushed out by the rights of the individual and group egoism. Unity and harmony are no longer recognized as the highest virtues any more. Pluralism has become the root of individualism.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나 교회도 개인주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연합을 찾을 수 있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자기 백성들이 연합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공동 참여하는 것에 근거한 연합, 즉 영적 연합 또는 하나님 안에 있는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The church is no exception. The church is the last fortress of community, but the church cannot avoid individualism. However, we can find unity and build it into the church. When Jesus prayed for the church, he prayed that his people would be united. Therefore, we must build a unity based on community which means participating together in Jesus and His gospel: a spiritual unity, and a unity found in God.

### 3. 모델 교회

예수님이 부활 승천 하신 후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처음 탄생했습니다. 성도들은 제 가금 받은 은사를 활용함으로 교회는 계속 성장했으나 거기엔 위선, 교리적 오류, 모든 종류의 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델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에는 연합을 뜻하는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바르고 적극적인 교제를 함으로 이웃과도 바르고 적극적인 교제를 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성도간의 교제와 예배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 3. The model church

After Jesus' resurrection and ascension to heaven, the church was built for the first time in Jerusalem. When Christians received gracious gifts and made good use of them, the church grew continually. Yet in the midst of all of this, there was also hypocrisy, doctrine error, and many other kinds of sin in the church. Yet, the early church was a model church in every regard. First of all, the early church kept a large company of people which meant that unity was among them. Because the Christians in the early church kept their relationship with God in righteousness and positiveness, neighbours also kept their relationship with others in righteousness and positiveness. In the early church, there was apostolic teaching, fellowship, worship, and the Lord's supper among the Christians.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바른 연합을 하면서 하늘나라에서 보여질 완전한 연합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My beloved christians!

As we unite with God each day in righteousness, I earnestly pray that you and I will look to the complete unity that will be seen in heaven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 제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3월 8일(월) - 5월 10일(월) 10주간

제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및 2010년 전반기 열린 프로그램 일정이 확정되었다.

제37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는 '다원사회 속에서 다종교와 이단, 사이버 종파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주제로 3월8일

(월) 오후 2시에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며 1교시는 허주교수(아세아 연합신대)가 베드로 전, 후서 강해를 한다.

2교시는 주제에 따라 전문가로 이루어진 10명의 강사가 강의를 진행한다.

	일시	2교시 강좌	강사
1교시 베드로전, 후서 강해	1주(3/8)	천주교	박일영 교수(루터교신학교 전 총장)
	2주(3/15)	불교	김영동 교수(장신대)
허주 교수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3주(3/22)	이슬람교	김종일 박사(서울교회선교사)
	4주(3/29)	힌두교(New Age)	김철영 목사(CANA Club, 회장; 한국기독교언론연구소 소장)
	5주(4/5)	원불교/승산교	최성수 박사(한남대)
	6주(4/12)	이단 사이버 종파(I)	허호익 교수(대전장신; 총회이단대책위원)
	7주(4/19)	이단 사이버 종파(II)	구춘서 교수(한일장신; 총회이단대책위원)
	8주(4/26)	이단 사이버 종파(III)	정동섭 교수(한동대)
	9주(5/3)	이단 사이버 종파(IV)	김종한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협회 부회장)
	10주(5/10)	이단 사이버 종파(V)	탁지일 교수(부산장신, Fuller, D, min)

## 이종윤 목사 러시아 노브고로드 장로 교회 창립예배 인도차 출국

러시아 김영호 선교사가 개척 설립한 노브고로드 장로교회 창립 예배와 첫 번 세례식을 2월14일 주일에 갖게 되었다. 이에 참석차 이종윤 목사외 13명의 선교위원들이 현지교회 창립을 감사하기 위하여 12일(금)에 출국하였다. 이종윤 목사는 창립예배 설교와 세례식을 집행하는 것 외에 러시아 목회자들에게 특강, 상트 페테르부르크 지역 선교사들 대상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모든 일정과 이종윤 목사와 일행들의 귀국을 위해 성도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 박노철 목사 설교 시작하다

지난해 8월15일 장로수련회 특강을 출발로 서울교회 사역을 시작한 박노철 목사가 6개월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을 마감하고 지난 10일(수) 수요예배를 시작으로 설교를 시작했다. 12일(금) 새벽기도회에서 마침 새로 시작하는 창세기 1장부터 새벽기도회를 인도한다. 14일 주일에도 이종윤 목사가 러시아 선교 방문을 하고 있어 주일 낮, 찬양예배 설교를 한다.

서울교회는 부목사가 부임해도 6개월간은 강단에 오르지 않는 규례가 있어 그동안 서울교회 목회 전반을 관찰하고 익숙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 사순절 (四旬節, Lent)

사순절은 부활절 전 46일째인 수요일(금년은 2월 17일)로부터 시작된다. 이날을 가리켜 '성회(聖灰) 수요일' 또는 '재의 수요일'(Ash Wednesday)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상징으로 전통적으로 머리에 재를 뿌린 데에서 유래한다.

사순절은 회개와 영적 생활의 갱신을 도모하는 절기이다. 이 절기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고백하며 금식과 같은 엄격한 경건의 행위를 통하여 자신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평소 때보다 더욱 너그럽게 구제에 힘써야 한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는 복음서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일에 힘써야 한다.

사순절을 40일이 아니라, 46일 동안 지키는 까닭은 이 기간에 있는 여섯 번의 주일은 참회의 날의 의미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날로 지키기 때문이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키는데 이 기간에는 특별히 결혼식 및 축하행사를 하지 않는다. 금년도 부활절은 4월 4일이다.

**북한구원운동**

# 주의 손으로 하나 될 민족

북한구원운동 제 6회 정기총회가 지난 8일(월) 우리교회에서 열렸다. 이종윤 목사가 대표회장, 김상철 장로님이 상임회장으로 있는 북한구원운동은 지난 2004년 3월 1일에 서울교회에서 개최된 '공산



독재종식민족복합화 3.1절 목회자금식기도대성회에 참석한 2,000여명의 목회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북한동포의 인권박해와 신앙박해를 방관할 수 없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뜻을 모으고 북한동포의 구원과 신앙자유 보장을 위해 행동하기로 결의하여 설립한 기독교인 연합 기관으로 국가비상대책협의회, 탈북난민보호등의 산하기관과 함께 북한구원운동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 날 기도회의 설교를 하신 이수영 목사님(새문안

교회)은 에스겔서 37:15-23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주의 손에서 하나가 될 민족이라고 하시며 "바벨에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해진 소식이 그들을 절망 가운데로 몰아갔지만 하나님은 그 회복의 환상을 보여 주셨다. 이는 오늘 우리 민족에게 주시는 약속이며 예언이다. 지금 한민족은 상반된 정치체제에서 65년간을 갈라져 살았지만 결코 통일의 소망과 비전을 잃지 말자. 하나님의 확고하신 뜻을 믿으므로

통일에 대한 염원을 포기하지 말고, 북한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포기하지 말고, 북한의 동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운동을 멈추지 말자"고 하셨다.

2004년에 설립된 이래 북한구원운동은 꾸준히 자유풍선 날리기(풍선 속에 복음지를 접어 넣은 것), 뉴 엑소더스 프로젝트, 탈북민들을 위해 중국에 자유의 쉼터 운영, 전도자 양성, 북한에 성경 보내기등 활발한 활동을 하며 통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잠시 북한을 잊고 있을 때에도 이러한 이들의 뜨거운 헌신과 기도가 있기에 북한 구원의 그 날은 그리 멀지 않게 느껴진다.



을 명절도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지하교회에서 애소하고 있을 우리의 동족을 기억하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이종운 목사 신년 장기결석 환자 심방

#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정수길 목사(7, 8교구 지도)

“이종운 목사님! 어디 갔다 지금 오셨어요?”

치매로 사람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권사님이 위임목사님을 보시고 건넌 첫 마디였습니다. 곧 이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셔서 부축을 받으셔야 하는 여든 셋의 권사님이 당신의 몸을 어렵사리 맡기고 있던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위임목사님께 달려들 듯 안기셔서 어린 아이처럼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권사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위로하시며 그윽한 눈길로 내려다보시는 위임목사님의 모습은 마치 오랜 세월 떨어져있던 연인을 만난 듯한 감동과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지난 1월 18일, 춘천시립양로원에서 치매로 오랜 기간 교회에 못 나오신 김현주 권사님(8교구)을 심방하던 때의 광경이었습니다.

이종운 위임목사님께서는 매년 1~2월 중에 1년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신 노인분들을 심방하시는 것으로 새해 목회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목사님께서는 노인심방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서울교회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



까운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지난 날 그분들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 눈물과 기도로 봉사하셨던 노고를 되새기며 감사의 정을 나누십니다. 아울러 구원체크를 하심으로써 장차 들어갈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다시 한 번 심어주고 계십니다. 비록 육신은 쇠하고 심지어 치매로 정신마저 온전히 못한 분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위임목사님께서는 이날 심방에서도 먼저 권사님께, “권사님, 예수님 믿으시지요?” “권사님, 천국 가고 싶으시지요?”라고 여쭙어보시면서 구원체크를 하셨습니다. 지난 해 네 차례 교구 목사가 심방하는 등

안 날로 심해진 치매 때문에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고 동문서답하셨지만 늘 구원의 확신은 고백하셨던 권사님은 이날 위임목사님의 질문에 예전처럼 단호하고 확신에 찬 어조로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활렐루야!

주일에 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터라 무척 피곤하실 월요일임에도, 위임목사님께서는 멀리 춘천까지 가서 예정대로 노인심방을 강행하셨습니다. 한편으로는 염려가 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의 몸 된 서울교회를 위하여 평생토록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과 위로를 통해 위임목사님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목회를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임목사님의 노인심방에 처음 참여하신 박노철 목사님께서 연신 은혜와 감사의 말씀을 토로하시다가 문득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찬송가 208장 3절 가사가 떠오릅니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이 찬양처럼 바로 이런 분들의 헌신과 교회사랑의 마음들이 모여 오늘 우리 서울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나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와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시 84:2).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 초대인글

## 꼭 함께 성경탐험을 해보자!



박민우 (초등부 회장)

애들아! 봄방학동안에 있는 겨울성경학교에 오고 싶지 않니?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는 성경탐험을 하는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즐겁고 재미있게 진행되단다. 우리 말이야, 2월 22일과 23일 교회 101호에서 만나자! 특별히 이번에는 신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되어 있어. 서명철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과 초등부선생님들의 눈부신 활동으로 연극도 준비되어 있단다. 더욱 우리를 설레게하는 것은 찬양 시간이야! 드럼과 기타와 율동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다 함께 올려드리자.

이번 성경학교 때 초등부에 처음 출석하는 학생 에겐 특별한 상을 준비했고, 전도를 많이 한 친구에게도 특별상을 준단다. 한 마음되는 레크레이션과 재치 있는 퀴즈풀이로 더욱 우리의 탐험은 긴장과 박진감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겠지!

애들아 학원공부로 마음 빼앗기지 말고 이번 봄방학에는 꼭 함께 성경탐험을 해보자! 초등부 친구들아! 사랑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자!



정승원 (초등부)

When I searched the Bible, the most interesting part was the Exodus. The Israelites who were slaves in the Egypt for 400 years were saved by the God at last. God was always with the Israelites and propected them from the Egyptians. As in the Bible I surely believe that God is with us and he takes care of us. What makes me sure of this is because I have experienced it before. It is really true that God always helps whenever we need help. On February 22nd and 23rd there is a good chance for those who haven't experienced such events like this. So please spare your time and come to the Winter Bible School, You will know who God is and what he is doing for us.



동시

## 우리 설날은

권수정 집사(5교구)

우리 우리 설날은  
색동옷 입고  
어른들께 세배하는데  
먼저 주님께 세배하면  
세뱃돈보다  
더 좋은 걸 주실거야.

빙그레 웃으시며  
우리 주님 하실 말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사랑 세어보아라.

알록달록 색동옷처럼  
웃고 우는 친구들도  
네 형제요 이웃이니라.



사랑부 겨울성경학교 초대이글

# 기도와 격려와 사랑으로



**이계홍 집사**  
(사랑부 부장)

올해 교회의 표어대로 사랑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주제로 사랑부가 겨울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가르치고, 힘찬 말 있다는 희망의 미소가 흐릅니다. 어둔하고 행동은 더



과 몸짓으로 보여주며 열심히 연습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사랑부에서 봉사하는 저로서도 하루 하루 지나며 비 장애인 못지않게 총명한 친구들이 바로 사랑부 학생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선생님과 학생들의 얼굴에는 할 수

없지라도 마음은 단순하고 새벽이슬처럼 깨끗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성도님들의 기도과 격려와 사랑의 관심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피는 것을 보며 하나님도 기뻐하실 줄 믿으며 성도 여러분들도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쇼프라노 신모란 성도의 찬양으로 드린다.

신모란 성도는 이화여자대학교 음대를 졸업한 후 이탈리아의 로마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졸업 및 로마 아카데미 전문 성악과정과 합창지휘과정을 졸업하였으며 지난 2월4일 세종 체임버홀에서 귀국 독창회를 가졌다.

할렐루야찬양대의 솔리스트로 봉사하고 있으며 오늘은 ‘복 주시고 지키시네(J. Rutter)’의 2곡을 김윤지선생(호산나찬양대 오르가니스트)의 반주로 하나님께 드린다.

## 동정

■ 이종운 목사는 18일(목)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회에 참여한다. 19일(금) 한장총 산하 각교단 총회장, 신학교 총장 간담회를 갖는다.

■ 특남 : (9교구) 우정무성도 최선한성도 가정 (16교구) 김주만 집사 인미나 집사 가정

■ 주간식당 봉사 : 모세 선교회(2.14) 이삭전도회(2.21)

■ 금주의 식사 : 박상건, 고이라성도 이인근집사 오규자집사 가정 (결혼 감사하며)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 일 오전 11시 20분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회	오후 8시 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천국시민양성 - 어린이 찬양예배 · 어린이 수요예배

## 미래 믿음의 꿈나무들



**윤종덕 집사**  
(어린이 찬양예배 부장)

영어찬양 배우기 · 탁구 · 구연동화 · 글짓기 · 그림그리기 · 영화감상 · 장기자랑 발표 그리고 성경퀴즈 등등... 서울교회 내에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미래 믿음의 꿈나무들이 모여 예배하는 곳, 바로 주일 어린이 찬양예배이지요. 주일 어린이 찬양 예배는 서명철 목사의 지도하에 유치부부터 초등부까지의 어린이들이 모이는 예배입니다. 예배 후 2부 순서에는 큰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선생님들이 어린이들의 수준과 관심에 맞추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며 믿음 안에서 쉼쉼 자라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까?

언제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주일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로 보내주세요. 1-2년 후 야니 수개월이 지나고 나면 성도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놀랍게 성장한 여러분의 자녀분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서울교회 어린이들을 기다리겠습니다.



**김명연 집사**  
(어린이 수요예배교사)

수요일 오후5시가 되면 6층은 잠시 소란해집니다. 수요어린이 예배에 오는 친구들이 신이 나서 뛰어오기 때문이죠.

요즘 어른보다 더 바쁜 초등학생들에게 평일 오후는 학원가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수요어린이 예배에 나오는 친구들은 학원가는 시간을 조정해가면서 수요어린이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열심을 냅니다.

물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삶의 우선임을 알고 아이들을 예배에 참석시키시기에 가능한 일이지만... 우리 아이들도 예배의 즐거움을 알고 수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답니다.

수요어린이 예배에서는 1부 순서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고 2부 순서로 매주 미술, 북아트, 종이접기, 구연동화,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수요 어린이 예배는 오직 서울 교회에만 있는 예배 모범입니다.

우리 친구들! 수요일 오후 5시 서울교회 603호로 오세요.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소서.
2. 겨울성경학교 · 수련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3. 러시아 노보고르드 장로교회 선교팀 위하여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북침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오시는 길

